

특구재단, 미래 먹거리 AI 신기술 실증 지원 앞장

광주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 조성·개소 지자체·유관기관 협업 신제품 개발 일조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이하 특구재단)이 미래 먹거리인 AI 신기술 실증 지원에 앞장선다. 특구재단은 차세대 미래 산업인 AI 기반의 에어가전에 관련한 신기술·신제품 실증을 위해 광주시와 함께 광주 북구 광주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공동으로 조성하고 지난 7일 개소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사진) 광주노비즈센터 내 설치한 실증장

치는 기존 도로변에 식재된 가로수의 탄소 저감효과와 공기 정화기능을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 기반의 실외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 한국전자기술연구원과 ㈜에스아이솔루션에서 공동 연구개발 중에 있다. 해당 실증제품은 국내 사계절 환경에 최적화된 담수용 미세조류의 광(光)생물반응기술과 미세조류 생장을 위한 마이크로 방오필름 등의 신기술들이 적용

된 실외 전용 대용량 공기정화장치로서 대기 오염도가 높은 도로 환경이나 공중 밀집도가 높은 실외 공중시설에서 동작 가능하도록 개발됐다. 그간 해당 제품의 실제 환경(도로변)에서 직접 가동을 통해 장치 안전성 검증과 운영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드 테스트를 추진하고자 했으나, 법령·지침 등의 규제 충돌 이슈로 실증을 추진할 수 없었다. 이에 특구재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운영하는 '연구개발특구 신기술 실증특례 제도'를 활용해 해당 장치가 연구개발특구 내에서 규제 저촉 없이 자유롭게 실증 가능하도록 규제특례 지정을 지원했다.



실증특례 지정기관이 기존 법령·지침 등의 규제 이외에도 행정 실무선에서 나타난 규제로 인해 겪고 있는 실증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관할 지자체와 특구재단이 손을 맞잡았다. 우선, 광주시와 광주 북구청은 관할

행정구역 내 실증 장치의 설치를 승인했으며, 추가 발생하는 행정절차 사항들도 간소화 지원을 약속했다. 특구재단의 경우 공동연구기관의 가장 큰 애로사항인 실증장소 지원을 위해 현재 광주연구개발특구본부가 관리·운영 중에 있는 광주노비즈센터 내 실증구역을 무상 제공했다. 강병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은 "앞으로도 특구재단은 광역·기초 지자체와 유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기존 규제로 인해 실증하지 못한 우수 신기술과 신제품이 연구개발특구 내에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상권 활성화와 총장22 패션쇼 광주 동구 총장22 비전전포식이 8일 오후 총장로5가 거리에서 펼쳐진 가운데 머그그레이스모델협회 소속 시니어 모델들이 패션쇼를 펼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인 총장22는 도심공동화 현상으로 위축된 상권을 살리고 문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문화예술 거점공간이다. /김에리 기자

광주·전남 5월 증시 매수·매도대금 급감

전월비 각 40.53%, 38.72% 줄어 5월 광주·전남 증시 매수·매도거래대금이 전월 대비 각각 40.53% (2조1천841억원), 38.72% (2조858억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의 5월 광주·전남 지역 증시 동향에 따르면 지난 달 지역 투자자 매수거래대금은 3조2천48억원, 매도거래대금은 3조3천18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월 대비 매수거래대금은 2조1

천841억원, 매도거래대금은 2조858억원 감소했다. 전체 대비 광주·전남 투자자의 매수거래대금 비중은 0.78%로 전월보다 0.13%p, 매도거래대금 비중은 0.80%로 전월보다 0.11%p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투자자는 코스피 분야에서 POSCO홀딩스, 포스코퓨처엠 등을 주로 매수했고, POSCO홀딩스, 삼성전자 등을 매도했다. 코스닥에서는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등 이차전지 대장주에 대한 매수와

매도가 이어졌다. 광주·전남지역 상장법인 중 한국전력 시가총액은 21.4% (2천567억원), 금호타이어 4.56% (589억원) 각각 늘었다. 또 남화토건은 17.62% (180억원), 위니아는 12.67% (87억원) 증가했다. 반면 한전KPS는 시총 4.76% (766억원), 조선내화 13.20% (520억원) 줄어들었다. 한국거래소 광주사무소 관계자는 "광주·전남 투자자는 5월 이차전지 관련주에 대한 거래를 활발하게 했다"고 밝혔다. /임채만 기자

“핑고엔터테인먼트, 중진공 글로벌 성장기업 선정”

2018년 법인 설립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업체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8일 "광주 소재 애니메이션 기업 '주식회사 핑고엔터테인먼트'가 중진공기업진흥공단 '수출바우처사업 및 글로벌 강소기업 1000+'의 '글로벌 성장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글로벌강소기업 1000+는 기존의 수출두드림, 수출유망중소기업,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나눠있던 제도를 하나로 통합·개편한 사업이다. 전년도 수출액 규모별로 유망(10~100만 달러), 성장(100~500만 달러), 강소(500만 달러 이상), 강소+(1000만 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기업을 선정, 기업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돕는다. 광주 동구 아이플렉스 건물에 본사를 둔 핑고엔터테인먼트는 2018년 광주에서 법인을 설립한 애니메이션 제작·배급업체다. 2016년도부터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애니메이션 파일럿 제작지원 및 기획창작스튜디오 레벨업 프로젝트 등 다양한 지원을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18년 KBS에서 방영한 '핀핑우리아이감정동요'는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파일럿 및 레벨업 제작지원 프로젝트이다. 올 하반기 EBS를 통해 새로운 3D 애니메이션 '샤샤&마일로(사진)'가 방영



될 예정이다. 해당 작품은 초기 기획 단계부터 각 작품성을 인정받아 유럽의 'Banjay Kids and Family'와 함께 공동 제작 계약 및 국내외 투자를 이뤄낸 프로젝트다. 샤샤&마일로는 고양이와 인간으로 변신이 가능한 샤샤와 마일로가 친구들과 함께 다양한 사건과 모험을 겪으면서 사람들을 돕는 영웅으로 성장해 나가는 내용이다. /양시원 기자

다음, 뉴스닷컴 대신 실시간채팅...네이버는 악플러 노출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다음이 8일 뉴스 댓글 서비스를 일제히 전면 또는 부분 개편했다. 악성 댓글을 뜻하는 속칭 '악플'의 사회적 폐해를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치권 등에서 제기됐던 포털 뉴스 댓글의 여론 조작 논란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아 보인다. 포털 다음(DAUM)은 뉴스 댓글 서비스 방식을 완전히 바꿨다. 카카오에 따르면 다음은 이날 0시부터 기존 뉴스 댓글을 실시간 채팅 방식인 '타입톡'으로 변경해 서비스 중이다.

기사 내용에 대해 대화를 주고받듯 의견을 나누도록 한 것으로, 기존 추천·찬반 순 정렬처럼 일부 댓글을 먼저 보여주는 형태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실시간으로 다양한 의견을 교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네이버도 뉴스 댓글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이날부터 뉴스 댓글 이용이 제한된 사용자의 아이디 일부와 닉네임, 이용 제한 상태를 노출하기 시작했다. 댓글 제한 사용자가 지금까지 작성한 댓글들도 다른 사람들이 모두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연합뉴스

스마트한 에너지사용 방법

난방비 똑똑하게 절약하는 방법!

- 1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는 20°C입니다. 난방온도 1도 낮추면 에너지사용량을 7% 줄일 수 있습니다.
- 2 북쪽이와 문풍지로 외풍을 막으면 실내온도를 2~3도 가량 높일 수 있습니다.
- 3 내복, 양말 등 실내에서 방한용품을 활용하면 체감온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 4 전열기는 꼭 필요한 때만 사용하고, 사용 시에는 소비전력을 꼭 확인하세요.

한국에너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창조클럽 아카데미 4기 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4기 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